

## 互體論의 發展과 그 易學的 意味

최인영\*

<目次>

- |                  |                 |
|------------------|-----------------|
| I. 序論            | IV. 中國의 互體 發展樣相 |
| II. 互體의 起源說      | V. 韓國의 互體 發展樣相  |
| III. 互體論의 易學的 理解 | VI. 結論          |

<국문 초록>

互體論은 『周易』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긴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 연구가 미비하였다. 본 논문은 易學史에서 호체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互體論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 卜辭로부터 시작한 互體의 기원을 비롯하여 역학적 이해를 위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互體의 발전 양상을 중국과 우리나라를 나누어 시대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서한시대의 京房이 최초로 互體說을 정립한 이래 의리학자로 알려진 程頤와 朱熹의 문인 朱震, 胡炳文은 스승과 상이하게도 취상적 해석에 더 많이 집중하였다. 朱熹는 『易學啓蒙』에서 모든 卦는 네 개(乾 坤 既濟 未濟)의 互體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즉 해석적인 측면보다 卦의 연관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朱熹는 互體를 배척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상수학자로서 象을 떠나서 易을 해석할 수 없다는 漢代의 역학을 적극적으로 연구발전 시킨 사람은 명대의 陳士元과 來知德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周易』의 卦辭 卦義 爻辭 의미를 互體 중심으로 규명한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인 曹好益과 영 정조시대에 역리와 내단학을 연구한 徐命膺 그리고 정조시대 牧民을 위하여 互體를 연구한 茶山 丁若鏞의 占辭的 해석을 연구대

\* 공주대학교 박사과정수료 / ch105050@daum.net

상으로 삼았다. 天 人 地 三才의 '陰과 陽', '精神과 物質', '時間과 空間' 등이 여섯 개의 爻속을 待對와 流行을 하며 두루 관통할 수 있는 것은 陰陽(-- --)의 부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역』 64괘를 자연의 물상과 사람을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은 의리학과나 상수학과나 다를 바가 없었다. 또한 근원을 알고자 할 때 상수학자는 물론 의리학자들도 淸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互體의 연구는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互體는 初爻와 上爻를 제외한 네 爻를 교호시켜 세운 中爻로써 '互體의 互體(互互體)는 人才에 속하는 三爻와 四爻가 중심이 된다.

三爻와 四爻는 人才에 속하는 爻이므로 전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 되는 부분을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互體論은 드러나지 않는 의미나 감추어진 복잡다단한 관계적 양상을 필요에 따라 ㄱ집어내어 포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니 互體를 떠나서 易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주제어】 互體, 朱熹, 曹好益, 徐命膺, 丁若鏞, 陰陽, 象數學, 互互體

## I. 序論

『周易』 해석에는 호체(호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래 괘체와 괘상을 근거로 한 해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互體에 의한 해석이 가장 용이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互體 해석은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호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비하다. 본 논문은 호체를 떠나서 『周易』 해석이 어려운 만큼 互體論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互體論이 처음부터 역학에서 중시되어 온 이론은 아니다. 특히 의리학에는 별로 중시되지 않았으며 일부 상수역 속에서 간단히 논의되어 오다가 점점 다양한 해석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해석 방법의 하나로 발전된다. 즉 象과 數가 義理를 드러내고 결정한다는 '상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 전편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다. 이와 다르게 象과 數는 의리에 근본 하여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의리학

적'인 입장에서는 互體論을 조금씩 필요에 따라 쓰면서도 가볍게 다루는데 그쳤다.

본고에서는 중국 춘추시대부터 청대까지 내려오는 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互體 활용을 검토해 보고 互體象에서 비롯된 여러 점괘 해석도 더 붙여 살펴보고자 한다. 京房에 의하여 정립된 호체 설은 漢代의 역을 정종으로 삼은 崔愷(생물연대 미상)과 明代의 來知德(1525~1609)을 비롯하여 조선의 曹好益(1545~1609)과 徐命膺(1716~1787) 그리고 丁若鏞의 다양한 互體法 등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茶山 丁若鏞은 '大互', '兼互', '倒互', '伏互', '脾胃', '兩互' 등의 다양한 형태들을 고안하여 互體法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互體說이 변효가 없거나 애매모호한 궤를 풀어나가는 획기적인 해석법의 하나로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는데 주목하여 호체의 기원설, 호체 론의 역학적 이해, 중국의 발전양상, 한국의 발전 양상을 고찰해 보고 많은 취상의 해석 방법 중에서 互體論이 지니는 의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 II. 互體의 起源說

互體說이 최초로 출현한 문헌<sup>1)</sup>은 『春秋左氏傳』<sup>2)</sup>이다. 宋代 王應麟<sup>3)</sup>이 쓴 『困學紀聞』에 의하면 전한시대 京房<sup>4)</sup>은 二 三 四位의 물상을 가리켜 '互體'라 하였고 三爻에서 五爻에 이르는 것을 '約象'이라 하였으니<sup>5)</sup> '互

1) 본 논문 IV. 중국의 호체 발전양상, 1. 春秋時代와 漢代의 象數的 互體說 참조.

2) 左丘明, 『春秋左氏傳』, 춘추시대 노나라 『春秋』를 해설한 春秋三傳 가운데 하나, 지금 전하는 것은 전한말기 劉歆 일파가 편찬한 것이다.

3) 王應麟(1223~1269) : 南宋著名學者, 字 伯齋, 號 深寧居士. 저서로 『困學紀聞』, 『玉海』, 『深寧集』 등이 있다.

4) 京房(前77~前37) : 저서 『京氏易傳』3권. 본래성은 李氏이다. 자는 君明. 焦延壽의 제자이다. 今文學者, 律學家, (『역학철학사』 권1, 소명출판, p.284)

體'라는 용어를 최초로 활용한 사람은 京房이라 하였다. 黃宗羲<sup>6)</sup>는 성인이 역경을 저술한 시기가 『春秋左氏傳』이 나온 시기로부터 얼마 되지 않기에 반드시 근거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하였고<sup>7)</sup> 張政烺<sup>8)</sup>은 互體說의 근거를 은허의 '갑골 卜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고 있다.<sup>9)</sup> 발굴된 은허의 卜辭에서는 다양한 조합의 숫자 패들이 발견되었다. 즉 세 개의 수가 모인 것, 네 개의 수가 모인 것, 여섯 개의 수가 모인 것 등이다.

이 중에서 세 개 수의 조합과 여섯 개 수의 조합은 소성괘와 대성괘로 보고 네 개수의 조합을 張政烺은 初爻와 上爻를 제외한 互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던 것이다. 卜骨에서 발견된 네 개의 숫자로 구성된 패로는 은허의 복사에서 발견된 “六七七六”<sup>10)</sup>과 소둔남지<sup>11)</sup>의 갑골에서 발견된 “八七六五”가 있다. 그리고 鼎名으로 기록된 네 개의 숫자도 발견되었는데 “八八六八”로 된 숫자 패이다. 여기서 奇數는 陽으로 偶數는 陰으로 치환시켜보면 “六七七六”은 大過의 互體인 兌(677)와 巽(776)이 되고 “八七六五”는 既濟의 互體인 坎(876)과 離(765)가 되며 “八八六八”은 坤卦의 互體인 坤(886)과 坤(868)이 된다. 이것을 今本 『周易』에 꿰어 맞춘 것은 무리한 추정으로 보이지만 互體일 가능성을 제시한

- 
- 5) 方仁,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p.412.  
 6) 黃宗羲(1610~1695) : 思想家, 史學家, 易學家. 號 南雷, 字 太沖.  
 7) 黃宗羲 撰, 鄭萬耕 點校, 『易學象數論』 권2(中華書局, 2010), pp.94-95, “夫春秋之說經者. 去聖人未遠, 其相傳必有自.”  
 8) 張政烺(1912년) : 字는 苑峰, 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員 主任 역임.  
 9) 張政烺, 「古代筮法與文王演周易」(中國古文字研究會 第一屆年會上發表, 1978), 張政烺, 「試釋周初青銅器銘文中的易卦」, 『考古學報』 1980年 第四期(『周易研究論文集』一,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0)  
 10)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p.411 재 인용. “六七七六”은 『甲骨文合集』 제9책 (29074片)에 수록되어 있음. 張政烺은 이 卜骨의 연대가 기원전 1200년 전후 즉 周 문왕의 祖父인 太王(古公亶父)이 戎狄의 침입으로 邠 땅을 떠나 岐山으로 옮겨간 시기보다 이전 시기라고 추정하였음.  
 11) 小屯南地 : 지금의 河南省 彰德府 安陽縣 小屯村 남쪽 지역, 商의 옛 도읍지가 있던 곳이며 殷墟라 불리는 곳이기도 함.

데 대해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sup>12)</sup> 또한 宋代의 마의도자<sup>13)</sup> 『正易心法』에 의하면 “한 괘 가운데는 여덟 괘 모두를 갖추고 있으니 正이 있고 伏이 있고 互가 있고 參이 있다(一卦之中, 凡具八卦, 有正有伏, 有互有參)”고 하는데 이 互가 있다는 有互의 말은 互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sup>14)</sup>

『周易』의 원형은 점서이며 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周易』은 미래를 예측하는 점서적 巫史 문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역학 철학사<sup>15)</sup>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상수학과’와 ‘의리학과’ 등 여러 학과 학자들 간의 부단한 독창적 해석 속에 내재되어 있는 內涵的 의미가 巫史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점서적 영역과 철학적 영역을 포함하여 무한한 독창적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여섯 개의 효로 된 괘체와 괘체에 따르는 卦象의 체계에 있다. 즉 ‘괘괘’와 ‘육십사괘’의 괘상은 글이 아닌 --(陰), -(陽)의 부호로 된 점서적 판단을 철학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광범하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周易』은 철학적 측면과 점서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게 되었다. 이들 부호에다 당면한 문제를 대입시켜 점서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괘의 변화에 있고 동효가 없는 괘는 괘 자체를 錯綜시켜 보던가 아니면 중효(中爻-二爻와 五爻, 二 三 四 五爻)를 봄으로써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판단하였던 것이다.

朱震<sup>16)</sup>과 來知德<sup>17)</sup>은 京房 互體 說의 의미를 『繫辭傳』下 9장, “물건이 잡다하게 뒤섞이면 덕을 가려야 한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나누는데 가운데 잣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 若夫雜物撰德 辨是與非.

12) 방인,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p.412.

13) 마의도자 : 송나라 때 인물, 觀相의 대가, 저서 『正易心法』이 있다.

14) 張政烺, 『張政烺論易叢稿』, p.72.

15) 朱伯崑, 『역학철학사』, 김학권 외 4명 옮김, 소명출판, 2012.

16) 朱震(1072~1138) : 남송학자, 역학가, 역학사가, 漢上先生이라 불림.

17) 來知德(1525~1604) : 明代의 역학가. 『明史』, 『儒林傳』에 의하면 『省覺錄』, 『省事錄』, 『理學辨疑』, 『心學晦明解』 등, 그 중 『周易集注』가 가장 뛰어난.

則非其中爻不備 …)의 구절로 해석한다.<sup>18)</sup> 이렇듯 한 개의 괘체에 나타나는 괘상 속에서 中爻(二三四五爻)를 抽出해 내는 것이 互體이다. 이후 互體는 '象數易學'에서 많이 활용된다.

### Ⅲ. 互體論의 易學的 理解

#### 1. 錯·綜과 互體

卦는 홀로,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섞이고 또 뒤집어지고 바뀌고 하여 변하기 마련인 것이 卦이므로 한 개의 卦體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양한 卦가 생겨난다. 특히 動爻가 없을 때는 互體를 내어서 錯으로 보고 또 綜으로 풀어나간다. 즉 互體만으로 象과 義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광범한 해석을 할 때는 互體 자체를 錯하기도 하고 綜하기도 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관련지어 해석해 들어간다. 이에 시대에 따라 달라진 면이 있는 착중(錯綜)의 의미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기술한다. 신성수는 『周易通解』 '대성괘의 변화원리'에서 之卦, 配合卦, 倒顛卦, 錯綜卦, 互卦가 있다고 하였다. 之卦란 本卦에 動爻가 있을 때 바뀌는 卦를 말하고 本卦가 水雷屯 卦라면 배합卦는 火風鼎卦가 되고 倒顛卦는 山水蒙卦가 되고 錯綜卦는 雷水解卦가 된다. 配合卦란 陰爻는 陽爻로, 陽爻는 陰爻로 바뀌는 卦이고 倒顛卦란 初爻에서부터 上爻까지 순서가 바뀌는 卦이다. 그리고 錯綜卦란 上卦는 下卦가 되고 下卦는 上卦가 되는 卦의 자리이동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錯綜卦는 이후 말하는 錯이나 綜의 내용과는 다르다. 上卦와 下卦가 자리바꿈하는 錯綜이란 말과 다음의 내용에 나오는 錯綜이란 의미는 같은 글자를 쓰지만 쓰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18) 윤석민, 「조호의 『易象說』 해석들 분석(1)」, 『동양철학』 제40집, 2013.

배합괘와 도전괘란 말은 漢代의 왕필을 이어 清代까지의 錯卦와 綜卦를 말한다. 먼저 錯에 대하여 살펴보면 '錯'이란 글자는 (자전에 의하면) 갈마들며 교대로 뒤따라 문체를 이룬다는 글자로서 여기서는 음양이 서로 짝을 이루는 의미이다. 그래서 陽은 陰과 짝하고 陰은 陽과 짝하며 반대로 변하는 것을 錯의 의미로 보았다. 예를 들어 乾괘와 坤괘가 짝을 이루고 坎괘와 離괘가 짝하는 것 등을 말함이니 錯은 『周易通解』의 배합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綜은 베틀의 날실을 끌어 올리도록 굵은 실을 매어놓고 위 아래로 오르내리며 베를 짜는 것을 의미한다. 괘의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屯괘가 蒙괘가 되는 것처럼 初爻에서부터 上爻까지 爻의 자리가 뒤바뀌는 倒置의 경우가 綜괘<sup>19)</sup>에 해당한다. 이는 『주역통해』의 도전괘에 해당한다. 즉 錯綜이란 陰과 陽을 짝하는 경우의 錯卦와 세로로 세워진 자리 순서를 뒤집어 놓은 綜괘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周易』의 육십사괘는 錯綜에 의하여 배열되어 있다.

'上經'은 乾과 坤의 錯卦 관계로 시작해서 綜(倒置의 관계)卦의 관계로 배열되어 있으며 스물일곱, 스물여덟 그리고 스물아홉, 서른 번째에 오면 山雷頤, 澤風大過와 重水坎, 重火離는 錯卦의 관계로 나열되어 있다.

'下經'에 와서는 서른한 번째와 서른두 번째에 속하는 澤山咸과 雷風恒의 綜卦(倒置)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倒置의 관계로 나열되다가 육십 하나와 육십 두 번째에 속하는 風澤中孚와 雷山小過에 와서는 錯卦의 관계로 되어있다. 마지막 육십 세 번째와 육십 네 번째는 서로 錯卦의 관계도 되고 綜卦의 관계도 되는 水火既濟와 火水未濟로 끝난다. 이는 육십 네 개의 卦 중에서 오십 여섯 개의 卦는 綜의 관계로 도치되어 있고 도치를 해도 같은 여덟 개의 卦는 陰陽을 반대로 짝지은 錯卦로 배열하여 놓은 것이다. 『周易』의 '六十四卦'중 錯의 관계를 이루는 卦

19) 來知德, 『易注』, 「繫辭傳」, “錯者, 陰陽相對, 陽錯其陰, 陰錯其陽, 如伏羲圓圖, 乾錯坤, 坎錯離, 八卦相錯是也, 綜卽今織布帛之綜, 一上一下者也, 如屯蒙之類本是一卦, 在下則爲屯, 在上則爲蒙. …”

는 乾 坤 坎 離 頤 大過 中孚 小過卦등 여덟 卦이다. 綜의 관계는 오십 여섯 卦이다. 錯과 綜을 겸하는 卦들은 泰 否 隨 蠱 漸 歸妹 既濟 未濟 등 여덟 卦이다.

南宋 蔡淵<sup>20)</sup>(待對와 流行을 맨 먼저 말함)의 영향을 받은 明代의 來知德은 錯을 待對<sup>21)</sup>의 이치로 설명하였고 綜을 流行<sup>22)</sup>의 이치로 설명하며 천지조화의 이치를 논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錯과 綜', '待對와 流行'은 천지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明末 清初 王夫之<sup>23)</sup>는 錯과 綜을 明과 幽로 말하였는데 즉 綜卦는 거꾸로 뒤집어서 보아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괘이므로 明이라 말하였고 뒤집어도 같은 괘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陰陽을 반대로 짝지어서 은밀한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錯卦는 幽라고 말한 것이다.<sup>24)</sup> 이는 明代의 來知德 학설을 더욱 발전시킨 王夫之의 독특한 견해이기도 하다. 래지덕은 錯卦의 관계를 서로 待對를 이루는 관계로 해석하여 「說卦傳」의 3장<sup>25)</sup>에서 乾과 坤을 첫머리에 둔 것은 八卦의 待對를 설명하기 위해서이고 4장<sup>26)</sup>에서 끝에 둔 것은 팔괘의 待對가 만물을 생성하는 공적을 논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 說은 이후 乾과 坤이 『周易』 '六十四卦'의 본체가 되어 육십 이괘를 세우는 乾坤並建과 이를 논증하기 위해 陽의

- 
- 20) 蔡淵 : 저서 『周易訓解』, 『易象意言』, 『卦爻詞旨』 등, 남송시기 理學家, 蔡元定의 長子.
- 21) 來知德, 『易經字義』, 「錯」, “天地造化之理, 獨陰獨陽, 不能生成. 故有剛必有柔, 有男必有女, 所以八卦相錯, 八卦既相錯, 所以象即寓於錯之中.”
- 22) 來知德, 『易經字義』, 「錯」, “蓋易以道陰陽, 陰陽之理, 流行不常, 原非死物膠固一定者. 故顛之倒之, 可上可下者, 以其流行不常耳.”
- 23) 王夫之(1619~1692) : 중국 호남성 형양출생, 字 三三, 而農. 號 강재, 매강옹 등 다, 文史哲에 두루 달통.
- 24) 王夫之, 『周易內傳』 권1, “易者 互相推移以摩盪之謂 … 『易』之用. 純乾純坤, 未有『易』也, 而相峙以立則『易』之道在, 而立乎至. 足者爲『易』之資 ‘屯 蒙’以下, 或錯而幽明易其位, 或綜而往復易其幾 …” 김진근 옮김, 학고방, 2014. pp.3-4.
- 25) 「설괘전」 3장, “天地正位山澤通氣 雷風相撲 水火不相射 八卦相錯 …”
- 26) 「설괘전」 4장, “雷以動之 風以散之 雨以潤之 日以烜之 艮以止之 兌以說之 乾以君之 坤以藏之.”

이면에는 陰爻가 있고 陰爻의 이면에는 陽爻가 자리 잡고 있어 한 괘는 6위가 아니라 12위가 된다는 왕부지의 '乾坤並建說'로 발전하게 된다.

『周易』 괘들을 순서대로 해석하는데 '錯綜說'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唐代의 孔穎達<sup>27)</sup>이다. 그러나 공영달은 착종설로 經과 傳의 문구들을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래지덕은 象을 중심에 두고 착종설과 변효와 호체를 접서의 해석 틀로 삼았다. 이는 공영달의 『周易正義注疏』 '非覆卽變說'<sup>28)</sup>에 대한 래지덕의 철학적 해석으로서 易 철학사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sup>29)</sup> 래지덕에 의하면 여섯 개의 효는 변한 후에도 여전히 錯綜과 中爻의 변화가 있어서 음양 순환의 이치를 체현하고 있다고 하면서 爻에 대한 해석은 주로 착중, 효변, 중효(호체) 등에 의하여 象과 義(卦德)를 취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乾道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姤로 상징되고 初九가 변하면 巽卦가 되고 巽의 錯卦가 震卦가 되므로 龍의 象이 있고 坤卦 역시 乾卦의 錯卦이므로 乾坤 모두 龍의 象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30)</sup> 그리고 坤卦 上六爻가 변하면 艮괘가 되고 艮卦가 綜이 되면 震이 되므로 坤卦 上六 역시 龍의 象이 있다고 하였다.<sup>31)</sup> 지금까지 動하는 爻가 드러내는 之卦와 綜의 의미 그리고 綜해도 같은 卦는 陰陽을 반대로 하여 象과 義를 해석해 들어가는 錯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待對와 流行'이 천지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互體'는 내면의 현상이 된다.

27) 孔穎達(574~648) : 저서 『周易』, 『左傳』, 『尚書』, 『毛詩』, 『禮記』에 주석을 달아 『五經正義』를 편찬, 河北의 冀州사람, 唐代의 유명한 經學家.

28) (魏)王弼 (晉)한강백주, (唐)孔穎達疏, 『周易正義』, 『序卦傳』, “因卦之次, 托以明義, 則變以對之, 乾 坤 坎 離 大過 頤 中孚 小過之類是也. 且聖人本定先後, 若元用孔子序卦之意, 則不應非覆卽變 …”

29) 주백근, 『역학철학사』 권6, 김학권 외 4명 옮김, 2012, p.69.

30) 來知德, 『易注』, “「乾」潛, 藏也, 象初. 龍陽物, 變化莫測, 亦猶乾道變化, 故象姤. 且此爻變巽錯震, 亦有龍象 …”

31) 來知德, 『易注』, “「坤」六陽爲龍, 坤之錯也, 故陰陽皆可以言龍, 且變艮縱震, 亦龍之象也, 變艮 …”

## 2. 互體와 中爻의 意味

다음은 互體를 이루는 中爻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호괘 역시 호체를 말한다. 互體를 구하려면 本卦의 中爻에 속하는 二 三 四 五爻가 互體를 구성하는데 즉 二 三 四爻는 互體의 下卦(內互體),가 되고 三 四 五爻는 互體의 上卦(外互體)가 된다. 三爻와 四爻는 下卦와 上卦에 중복된다. 그러므로 互體는 卦 자체가 변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上爻와 初爻를 제외한 가운데 네 효(二 三 四 五爻)를 交互(交互)시켜서 관련된 물상을 주로 보기 때문에 호체를 中爻라고 부르기도 한다. 之卦와 互體(卦)의 의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는 없지만 경방으로부터 시작되는 호체를 호괘가 아니라 호체라 부르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경방 역시 ‘괘체의 中爻’로 말하기 때문에 호괘가 아닌 ‘호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본다.<sup>32)</sup>

『周易』 ‘六十四卦’를 해석할 때 자연의 물상을 사람과 관련시켜 해석한 측면에서는 경학과나 상수학과나 같았다고 보지만 互體는 주로 상수역학자 경방이나 우번 소강절 등에게서 많이 연구하고 활용한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좀 아이러니 한 것은 의리역학과인 程頤<sup>33)</sup>의 문인이었던 朱震<sup>34)</sup>이나 역시 程朱학파의 문인이었던 胡炳文<sup>35)</sup>등은 상수학적 견해를 적극 수용하였으니 理학과들의 냉랭한 외면 속에서도 互體는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이다. 『四庫全書總目提要』는 청대의 李塉<sup>36)</sup>이 쓴 『周易傳注』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책은 象을 자세히 살피는

32) 신성수, 『주역통해』 「호괘」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호체는 본괘 자체에서 初爻와 上爻를 제외한 中爻로 보기 때문에 이후 본 논문 내용에서 호괘가 아닌 호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33) 程頤(1033~1107) : 字 叔正, 伊川先生이라 불림.

34) 朱震(1072~1138) : 남송학자, 역학자, 역학사가, 漢上先生이라 불림.

35) 胡炳文(1250~1333) : 胡一桂의 子. 字 仲統, 號 雲峰胡氏. 술수학, 중의학자.

36) 李塉(1659~1733) : 저서 『周易傳注』, 『論語傳注』, 『李塉後集』 등. 清初 河北省 蠡縣 출신, 字 剛主, 號 恕毅.

것을 위주로 하고 역시 互體를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sup>37)</sup> 이 말은 淸代의 李塨은 주로 互體를 많이 사용하여 卦辭나 爻辭의 물상을 살펴보았다는 말이다.

즉 그들은(경학과나 상수학과) 互體를 쓰지 않고 卦사나 爻사를 해석할 수 없었지만 비교해 보면 경학과는 互體를 쓰면서도 드러난 象의 이면에 근원하는 의미가 근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즐겨 쓰지 않았을 뿐이고 상수학자들은 『周易』속에 존재하는 文辭의 모든 구절은 성인이 자의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象과 數에 근거해 있음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互體를 즐겨 활용한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動爻가 있는 卦는 之卦로, 動爻가 없는 卦는 錯綜과 互體를 중심으로 수많은 역학자들은 즐겨 해석하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살펴보면, 互體에서 ‘初爻와 上爻를 제외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필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王弼과 徐命膺의 견해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王弼<sup>38)</sup>은 의리적 해석을 지향한 사람으로서 호체를 배척한 사람이다. 初爻와 上爻에 대하여 王弼은 『周易略例』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릇 ‘位’라는 것은 貴賤으로 나열되어 있는 곳으로써 재능이 결정되어 쓰이기를 기다리는 곳이다. 爻에는 분담된 소임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고 응하는 貴賤의 순서라는 것이 있다. 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있다. 爻에는 陰陽이 있다. 높은 것은 결정하고 다스리는 바의 陽이고 낮다는 것은 다스려지는 바의 陰이다. 그러므로 尊貴한 것은 陽자리가 되고 낮은 것은 陰자리가 된다. 初爻와 上爻의 자리를 나누어 말해 본 즉 三爻와 五爻는 각 한 卦의 높은 곳에 있으니 역시 어찌하여 陽자리라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二爻와 四爻는 각각 한 卦의 아래에 있으니 역시 어찌하여 陰의 자리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初爻와 上爻는 卦體의 처음과 끝이고 일의 먼저와 나중이다. 그리고 初爻와 上爻 자리에는 항상된 직

37) 『四庫全書總目提要』, “大抵以觀象爲主, 而亦兼用互體 …”

38) 王弼 : 위진 시기 의리역학파의 대표학자.

분이 없고 일에는 항상된 소임이 없으므로 陰陽을 정할 수 없다. 높고 낮음에는 항상된 순서가 있지만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항상된 주인이 없으니 그런고로 繫辭에서도 네 개의 爻 자리에만 법식에 통하는 공로를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자리에 初爻와 上爻는 해당되지 않는다.<sup>39)</sup>고 하였다. 즉 일의 始終과 先後에서는 陰 먼저, 陽 먼저 또는 陰 나중, 陽 나중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象傳」에는 初爻와 上爻가 자리를 얻음과 얻지 못함에 대한 표현이 없으며 「繫辭傳」 또한 三爻와 五爻, 二爻와 四爻의 네 효에 대해서만 역할과 자리에 통상적인 규칙을 논했지 初爻와 上爻에는 정해진 자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朱伯昆<sup>40)</sup>이 쓴 『역학 철학사』에서 밝혀 놓았다.<sup>41)</sup>

그리고 『易學啓蒙解』를 지어 정조를 가르친 徐命膺은 『參同攷』 「互體攷」에서 初爻와 上爻 두 爻는 형질의 표피로서 心과 意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中間의 네 효(二爻에서 五爻까지)는 心과 意로서 주고받고 건네며 일하는 것<sup>42)</sup>이라 하였다.<sup>43)</sup>

여기서 下卦의 가운데(二爻) 효와 上卦의 가운데(五爻) 爻를 의미하는 中爻와 互體(二 三 四 五爻)를 이루는 中爻의 의미를 「繫辭傳」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 학자들 간의 말을 종합해 보고자 한다. 「繫辭傳」下 9장 ‘…若夫雜物撰德 辨是與非 非其中爻不備…’의 “그 中爻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는 말에서 왕필, 한강백, 공영달, 疏는 ‘中爻’를 ‘二爻와 五爻’로

39) 王弼, 『周易略例』, 「變位」, “夫位者, 列貴賤之地, 待才用之宅也. 爻者 守位分之任, 應貴賤之序者也. 位有尊卑, 爻有陰陽. 尊者, 陽之所處. 卑者, 陰之所履也. 故以尊爲陽位, 卑爲陰位. 去初上而論位分, 則三五各在一卦之上, 亦何得不謂之陽位? 二四各在一卦之下, 亦何得不謂之陰位? 初上者, 體之終始, 事之先後也, 故位无常分, 事无常所, 非可以陰陽正也. 尊卑有常序, 終始无常主. 故繫辭但論四爻功位之通例, 而不及初上之定位也.”

40) 朱伯昆(1923~2011) : 저서 『易學哲學史』 전4권, 崑崙出版社, 2005.

41) 朱伯昆, 『역학철학사』 권2, 김학권 외 4명 옮김, 소명출판, 2012, p.81.

42) 서명웅 지음, 이봉호 역주, 『參同攷』(예문서원, 2009), 「互體考」, “推類配象, 則初上兩爻即形穀, 所以含具心意也, 中間四爻即心意, 所以酬酌事爲也.”

43) 이와 같은 서명웅의 통찰은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탁견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여겼지만 唐代의 崔憬<sup>44)</sup>은 ‘中爻’를 한 괘속의 네 효 즉 ‘二 三 四 五爻’라 하였다. 예를 들면 「繫辭傳」下의 “존속하느냐 망하느냐,吉하냐凶하느냐에 중요구나 역시 환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sup>45)</sup>라는 구절에서 뒤섞인 효들 낱낱의 象에는 모두 吉함과 凶함의 의미가 담겨있고 만물의 상이 반영되어 각자의 때(時宜)와 특정 물(物)들을 드러내고 있으니 二, 五爻만으로도 吉함과 凶함의 일들을 추구하여 결정할 수가 있지만 二와 五爻의 象 속에는 없기 때문에 즉 二, 五爻만으로는 다른 괘들과의 의미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中爻(互體)’는 ‘六十四卦’ 해석의 범주를 풍부하게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역 경전 효사의 해석이 잘 안 될 때 억지로 갖다 쓰는 것으로 작게 보아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본괘 뿐만이 아니라 之卦에서도 互體를 만들어 해석하였고 錯卦에서도 互體를 만들어 해석하였고 綜卦에서도 互體를 만들어 해석하였으니 원만한 해석을 하고자 할 때는 卦마다 가능한 互體를 내어 해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 互體의 易學的 意味

朱熹는 『春秋左氏傳』에 互體 說을 사용한 용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互體不可廢論’을 주장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朱熹가 『易學啓蒙』에서 말한 互體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乾 坤 既濟 未濟에는 열여섯 개의 互가 있는 즉 모든 卦는 互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열여섯 卦를 또 互하면 乾 坤 既濟 未濟 네 개의 卦가 되니 열여섯 卦는 마치 네 개의 象으로 돌아가는 것과

44) 崔憬 : 생몰미상, 李鼎祚의 『周易集解』에서 많이 보임, 孔穎達의 『周易正義』를 많이 인용하였음.

45) 「繫辭傳」下 9장, “若夫雜物撰德 辨是與非, 則非其中爻不備, 噫亦要存亡吉凶, 則居可知矣, 知者觀其象辭 則思過半矣.”

같다.<sup>46)</sup>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六十四卦’ 역시 홀로 어디서 뚝 떨어져 존재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火風鼎卦라면 화풍정괘의 호체는 澤天夫卦이고 택천괘의 互體는 中天乾卦이므로 火風鼎卦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澤天夫卦와 中天乾卦에 조상과 같은 깊은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朱熹는 互體를 卦나 爻의 해석적 측면 보다는 卦의 연관성에다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 나아가 本卦와 互體 그리고 互體의 互體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天 人 地 三才중 人才에 속하는 本卦의 三爻와 四爻가 곧 互體의 互體 즉 ‘互互體’<sup>47)</sup>를 이루고 있으니 자연계와 사람의 관련성에서 『周易』은 오로지 사람을 위주로 펼쳐져 있다는 것 또한 더불어 알 수 있다.

반면 다산 정약용은 주희와 달리 易詞 해석론의 하나로 호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互體란 무엇을 이르는가? 대개 한 개의 괘 가운데 八卦 중 네 개의 卦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한다. 가령 水雷屯 괘라면 이 屯卦 가운데 二爻에서 四爻까지 함께하는 공이 있는 즉 ‘互坤’이라 말하고 三爻에서 五爻까지 함께하는 공이 있는 즉 ‘互艮’이라 말한다. 그런즉 이러한 한 개의 괘 안에는 坤卦와 艮卦가 함께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단지 震卦와 坎卦만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주자도 ‘互體之說은 廢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胡雲峰, 洪容齋, 吳臨川 등 諸公들이 논증한 것들도 있다. 『春秋』에도 官占의 법에 관한 경우 모두 ‘互體’를 취하여 묘용을 이루었으니 진실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에 익숙하게 집중하면 저절로 맞게 칼로 자르듯 풀어진다.”라고 하였다.<sup>48)</sup>

46) 『易學啓蒙』, “互乾坤既未濟之十六卦, 卽諸卦之所互而成者也, 故十六卦又只成乾坤既未濟四卦, 猶十六事之歸於四象也.”

47) 호체의 호체를 말함, 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임의대로 명칭함.

48) 김인철, 『다산의 『周易』 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 p.67에서 재인용. 「與尹畏心-永僖」, “何謂互體. 大凡一卦之中, 包函八卦之四, 假令下震上坎曰屯, 而此屯卦之中, 二與四而同功則名曰互坤, 三與五而同功則名曰互艮, 則此一卦之中, 坤艮具存, 而世人第知有震坎而已. 朱子曰互體之說不可廢, 胡雲峰洪容齋吳臨川諸公竝有論證. 若春秋官占之法, 皆取互體以成妙用, 苟虛心一玩, 自當迎刃而解矣.”

한 개의 卦를 보는 측면은 참으로 다양하다. 本卦의 陰陽이 바뀐 卦에서 互體를 내어 보고 上卦와 下卦가 바뀐 卦에서 또 互體를 내어 물상을 찾고 또한 爻의 자리를 서로 주고받거나 待對하는 爻들이 서로 사귀는 관련성에서 여지없이 互體를 내고 분해하여 卦辭나 卦象, 爻辭나, 爻象의 근거를 찾아 들어가고 動爻에서 변한 之卦에서 또 互體를 찾아내는 등 그 의미를 풍요롭게 해석하는데 互體를 빼놓을 수 없다.

互體는 어떤 의미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호를 교호하여 象 밖에서 象을 낳는 '象外生象의 象'으로 취한 것이다. 그러면 象外生象할 수 있는 원류를 찾아 들어가 보고자 한다. 乾 坤 두 개의 卦가 서로 二爻와 五爻의 陰陽을 주고받으면 坤卦는 坎卦가 되고 乾卦는 離卦가 된다. 坎卦 初爻에서 三爻까지는 坎卦가 되고 二爻에서 四爻까지는 震卦가 되며 三爻에서 五爻까지는 艮卦가 된다. 離卦는 初爻에서 三爻까지는 離卦가 되고 二爻에서 四爻까지는 巽卦가 되며 三爻에서 五爻까지는 兌卦가 된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坎卦라는 卦 속에는 陽卦가 모여 있고 離卦의 卦 속에는 陰卦가 모여 있음을 互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乾卦는 離卦가 되므로 乾은 體가 되고 離는 用이 되니 乾은 用으로 火를 쓴다고 볼 수 있으며 坤卦는 坎卦가 되므로 坤은 體가 되고 坎은 用이 되니 坤은 用으로 水를 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水와 火는 乾 坤의 用이 되기에 '六十四卦'를 體와 用으로 나누어 보려면 '互體'를 내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때로는 互體에서도 內互體나 外互體를 구하여 따로 해석하기도 한다. 義理的 해석을 중시했던 宋衷<sup>49)</sup>은 그가 지은 『역주』에서 泰卦 六四 「상전」의 “나부끼듯 부유하지 않고(翩翩不富)”란 내용도 互體를 취하여 外互體 三爻 四爻 五爻의 震卦를 나부끼는 상으로 본 것이다.

이는 象 속에서 象을 찾고 찾은 象 속에서 또다시 象을 찾는 卦체 법으로써 해석이 막힐 때는 서슴없이 찾아보는 것이 '互體'였다. 그러나 실제

49) 宋衷(170~201 전후) : 의리 경학파로서 '后定'을 건립, 「周易」과 「태헌」 사상에 이해가 깊었음.

로 패변 법이 아니면서 범위를 넓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 외 互體를 채택하는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繫辭傳」下 8장50)에 따르면 '易은 천지 사방에 두루 흘러 늘 상 똑같이 정해진 바가 없다' 고 하였듯이 易은 자유자재하며 그 변화에 한계가 없기에 互體의 다양한 체법을 활용하는 것이 역법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易 해석을 위한 취상법도 다양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互體는 本卦의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이다. 변하는 짓가 하나도 없어서 上卦와 下卦의 물상만으로 해석이 불가능 하더라도 互體를 찾아보면 그 자체로 다른 괘와 관련을 맺게 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六十四卦의 爻辭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원리가 된다.<sup>51)</sup> 따라서 본 논문 중 거론되는 '本卦와 互體'는 서로 간에 관련된 단서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IV. 中國의 互體 發展樣相

##### 1. 春秋時代와 漢代의 象數的 互體說

漢代의 해석자들은 먼저 象이 있고 그 후에 文辭가 있으니 문사는 象에 근본 한다고 보았다. 이런 방법으로 『周易』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象數學派'라고 부른다. 상수학과들은 八卦의 象에 근거하여 꾸준히 八卦 象의 종류를 증가시켜 왔다. 象으로 象을 만드는 '以象生象'을 위하여 끊임없이 취상하여 온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이미 확정적인 辭가 있는 부호를 전환하여 象 밖에서 象을 낳는 '象外生象'의 象을 취한 것이 互體라고 말한 바 있다. 象外生象으로는 호체법,, 패변법,, 납감법<sup>52)</sup> 등을 들 수

50) 「繫辭傳」下 8장, “... 周流六虛, 上下無常 ...”

51) 신성수, 『周易通解』, 2005, p.81.

52) 정병석, 「방통과 통합 - 『주역』 해석 공간의 확장과 연속」, 한국 주역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6.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호체법 외는 論外로 하겠다.

漢代의 경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청나라 말기까지 주로 많이 활용해온 대표적인 卦 해석법은 之卦와 錯綜, 互體법이었다. (之卦와 錯綜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象數易에서는 互體를 찾아내어 일의 성격과 자질, 일의 중간과정을 알고자 하는데 많이 쓰인다. 그리고 수시로 二 三 四 五爻를 응용하여 그 象과 義(卦德)를 많이 취하여 왔다.

『左傳』 장공 22년에 주나라 太史가 『周易』을 가지고 晉侯를 뵈자 진 후가 그에게 占을 치도록 하였는데 觀괘와 之卦인 否괘를 얻었다. 觀卦 四爻가 老陰이 되어 否卦가 된 것이다. 이는 陳敬仲(진려공의 아들)의 후대가 창성할지 묻는 占卦이다. 觀卦 六四 효사에 “나라의 빛을 봄이니 나라의 손님이 되기 이롭다.(觀國之光 利用賓于王)”<sup>53)</sup> 라는 말은 진경중의 후대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周나라 士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坤은 땅이고 巽은 바람이며 乾은 하늘이다. 바람은 하늘에서 일어나 땅 위에서 운행하는 것인바 山에서도 운행한다.<sup>54)</sup> 에서 山을 취한 것은 否卦에서 二 三 四爻가 艮괘가 되니 山이라는 그 象을 취하여 해석한 내용이다. 또한 『國語』, 「晉語四」<sup>55)</sup> 기록에 의하면 重耳가 떠돌아다닐 때 점을 쳐 屯괘와 豫괘를 얻었다. 사공계자는 이에 震은 수레이고 坎은 물이며 坤은 땅이라 하였으며 屯은 두텁다고 하였다. 豫는 기쁨이요 수레는 上卦(雷地豫의 上卦)와 下卦(水雷屯의 下卦)에 나누어져 순하게 이꿈을 가르치고 있으며 샘의 근원은 물자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땅이 두터운 것은 그 결실의 즐거움을 말하니 晉國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찌 마땅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sup>56)</sup> 에서 '以象生象' 즉 象에서 象을 취하였다. 屯卦의 互體 2효에서 4효까지

53) 『左傳』, 莊公 22年, 周史有以周易見陳侯者, 陳侯使筮之, 遇觀之否 曰, “是謂觀國之光, 利用賓于王. 此其代陳有國乎.”

54) 『左傳』, 莊公 22年, “坤, 土也, 巽, 風也. 乾, 天也, 風爲天于土上, 山也, 有山之材 …”

55) 『國語』, 「晉語四」 夏왕조 성립 이전의 중국 고대사의 현장실록.

56) 『國語』, 「晉語四」, “震, 車也. 坎, 水也. 坤, 土也. 屯, 厚也. 豫, 樂也. 車班外內, 順以訓之, 泉原以資之, 土厚而樂其實. 不有晉國, 何以當之?”

坤卦의 象을 유순함이라 하였고 3호에서 5호까지 艮괘의 象과 上괘인 坎괘에서 象을 취하여 샘이 마르지 않는 산이라 하였다. 豫괘도 역시 互體를 내어 外互體 坎과 內互體 艮을 취하여 산속의 샘이 마르지 않음을 말하며 豫는 즐거움을 뜻하니 重耳가 응당 진나라를 영위할 것이라 하였다.<sup>57)</sup> 이러한 내용을 보면 下卦와 互體 그리고 上卦와 互體를 넘나들며 자연스럽게 서로 관련지어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폭넓은 해석 차원에서 ‘互體’는 끊임없이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 2. 宋代 互體 解釋의 發展

趙(趙匡胤)氏 왕조인 宋代에 와서도 程頤는 여전히 왕필 학문만을 고집하며 『易傳』을 지어 모든 卦變 설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그의 책을 살펴보면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결국 卦變을 취하여 잡다하게 보충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로써 漢代 역학의 상수학은 심증팔구가 사라져 버렸다고 毛奇齡<sup>58)</sup>은 『推易始末』에서 밝히고 있다.<sup>59)</sup>

특히 宋代의 邵康節<sup>60)</sup>은 ‘梅花易數’ 점법으로 유명하다. 본 卦에서 二 三 四爻를 내호체, 三 四 五爻를 외호체로 호체를 세워서 동효가 없는 卦를 체괘, 동효가 있는 卦를 용괘라 하였다. 또한 호체를 내어 동효가 있는 용괘와 가까이 있는 호체를 용호체, 체괘와 가까운 호체를 체호체라 하면서 호체 자체를 길 흉을 가늠하는 그 중심에다 두었다. 예를 들어 水雷屯 卦에서 初爻가 動하는 卦가 나왔다면 動한 初爻가 있는 아래 震卦는 用괘가 되고 動爻가 없는 위 坎水卦는 體괘가 된다. 二 三 四爻의 坤 호체는 동효가 있는 用괘와 가까우므로 用互體가 되고 三 四 五

57) 주백근, 『역학철학사』 권1, 소명출판, 2012, p.86.

58) 毛奇齡(1623~1716) : 청대 경학가, 역학가. 字 大可. 號 秋晴, 初晴.

59) 毛奇齡, 『推易始末』, “延及趙宋, 則反曉王學而不識漢學, 程伊作傳, 斥諸卦變 而考其爲傳, 周章難明 其萬不通處, 亦終不能不取卦變而雜補之.”

60) 邵康節 : 저서 『觀物篇』, 『漁樵問答』, 『伊川擊壤集』, 『先天圖』, 『皇極經世』 등. 字는 堯夫, 諡號는 康節, 范陽사람, 象需적, 관념론적 철학을 수립함.

爻 艮 호체는 體互體가 된다는 것이다. '매화역수'에 있어서 호체가 체괘를 생하느냐 극하느냐에 따라서 점사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호체(내호체와 외호체)는 체괘,, 용괘,, 변괘와 더불어 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남송시기 '漢代易學'의 취상 설을 계승한 朱震<sup>61)</sup>은 그의 저서 『漢上易傳』 「序」에 한 괘(대성괘)에 네 개의 괘(소성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즉 上卦와 下卦, 그리고 內호체 外호체를 말한 것이다. 주진은 이것이 「계사전」의 '八卦相蕩'<sup>62)</sup> '雜物撰德'<sup>63)</sup> 등에 근본이 있다고 여겼다.<sup>64)</sup> 또한 朱震은 『漢上易傳』에서 乾괘의 九四와 九五 「象傳」<sup>65)</sup>의 글귀를 다음과 같이 풀이 하였다. 初호 二호 三호에는 震卦가 잠복하고 있고 九五에는 坎이 잠복하고 있다고 하였다. 震은 龍이요 다리며 九四가 변하면 外호체는 離卦가 되고 內互體는 兌卦가 되는데 兌卦는 澤이요 연못을 의미한다. 九四는 자리가 마땅치 않으므로 연못에 잠복해 있으면 물러나는 것이 된다. 물러나면 허물이 있으나 '或躍在淵无咎' 뛰어나가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sup>66)</sup> 易은 象이므로 그는 본 괘의 괘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괘들에게 두루 통할 수 있는 互體에서 취한 물상을 통하여 卦와 爻辭를 풀이하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互體 說을 한대 역학의 전통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와는 좀 더 다른 특이한 생각을 갖고 주희와 논변했던 임율<sup>67)</sup>은 한

61) 朱震 : 저서 『주역집전(漢上易傳)』. 정이의 대제자인 謝良佐, 즉 上蔡의 문인으로서 宋史에 전기가 나와 있음.

62) 「계사전」上 1장, “天尊地卑 乾坤定矣. … 是故剛柔相摩 八卦相蕩.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

63) 「계사전」下 9장, “易之爲書也 原始要終以爲質也. … 若夫雜物撰德 辨是與非. 則非其中爻不備 …”

64) 주백근, 『역학철학사』 권4, 소명출판, 2012, p.18.

65) 「乾卦 九四 象傳」, “或躍在淵 進 无咎也.” 「九五象傳」, “飛龍在天 大人造也.”

66) 朱震, 『漢上易傳』 권1, 乾卦, 「상전」, “初二三, 有伏震, 震爲龍爲足, 五爲坎. 九四變離兌, 兌爲澤 澤, 淵也. 足進乎五, 或躍也. 伏震爲龍 退而在淵也. 九居四, 履非其位, 宜有咎, 進則无咎.”

괘(대성괘) 자체를 태극으로 보았다. 上卦와 下卦를 兩儀 그리고 호체의 外호체와 內호체에 兩儀를 포함하여 四象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괘를 綜(倒置)하여 上卦와 下卦 그리고 호체의 外호체와 內호체를 포함하여 팔괘가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鼎괘가 있다면 여섯 개의 것으로된 鼎괘는 태극이 되고 上卦인 離卦와 下卦인 巽卦는 兩儀가 되고 호체(澤天夬)의 內호체인 乾卦와 外호체인 兌卦가 兩儀와 함께 四象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鼎卦를 綜(倒置)하면 革卦가 되는데 革卦의 上卦인 兌卦와 下卦인 離卦 그리고 革卦의 호체(天風姤)중 外호체 乾卦와 內호체 巽卦를 합하여 八卦가 된다는 말을 하였다. 즉 태극에서 팔괘의 의미를 본 괘와 호체, 綜괘(倒置)와 호체를 중심으로 하여 구하였는데 이는 본괘 자체가 호체와 綜괘를 품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

주희는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가져 낳으면 어머니 밖의 자식이 되지만 임율이 말하는 포함하고 있기에 낳을 수 있다는 이 말은 聖人이 말하는 낳는다는 의미와는 다르기에 주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sup>68)</sup> 즉 주희는 임율이 적극적으로 호체 설을 표방하며 ‘한 개의 괘는 여덟 개의 괘로 바꾸어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에 대하여 웃어버렸다고 『朱子語類』에 전해지지만<sup>69)</sup> 필자가 생각하기엔 매우 기발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 3. 明 · 清代以後의 互體研究

明代의 陳士元은 자신이 쓴 『易象鉤解』의 「서문」에서 “경방의 학문이 내려온 데는 나름의 연원이 있다.”고 하였다. 성인이 복서에 근거하지

- 
- 67) 임율 : 저서 『周易經傳集解』. 남송 때 복주(복청)사람, 자는 黃中, 상수학과.  
 68) 『朱熹集』, 「記林黃中辨易西銘」, “兼若如此, 卽是太極包兩儀, 兩儀包四象, 四象包八卦, 與聖人所謂生者, 意思不同矣.” 林曰, “惟其包之, 是以能生之, 包之與生, 實一義爾.” 予曰: “包如人之懷子, 子在母中. 生如人之生子, 子在母外, 恐不同也.”  
 69) 朱熹, 『朱子語類』 제67, “... 近來林黃中又撰出一般翻筋斗互體, 一卦可變作八卦, 也是好笑.”

않고 『周易』을 지어 오로지 언설을 세워 교훈을 주고자 했다면 산가지로 설시를 하여 괘를 그리는 일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sup>70)</sup>라며 진사원은 역의 쓰임이 卜筮에 있고 복서는 象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漢代 역학이 象數로 경전을 해석했던 體例를 긍정하였으며 변효, 호체 등을 상고시대의 복서법이라고 보아 상수학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주(程朱: 정이와 주희)의 전통만을 계승하여 취의설만을 견지하고 취상 설을 경시하는 학풍에 대해 당대의 사람들 중에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來知德<sup>71)</sup>의 『周易集注』는 宋明 시기에 발전된 상수학적 기초위에서 완성되었다. 특히 錯綜, 爻變, 中爻 등으로 육십네 개의 괘, 괘상과 효, 효상을 해설함으로써 취상설을 발전시켰다. 錯이란 효의 음양이 반대되는 괘를 의미하고 綜이란 初爻부터 上爻까지의 위치를 도치시켜 놓은 괘이다. 즉 乾卦와 坤卦는 錯의 관계라 하고 屯卦와 蒙卦를 綜의 관계라고 앞에서 말한바 있다. ‘中爻’란 거듭 말하지만 ‘互體’를 말한다. 특히 래지덕은 점서 차례에 대해 호체 설을 취하고 있으며 象을 떠나서 역을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래지덕은 『易經字義』에서 卦象과 錯卦, 中爻(호체)說, 爻變에 대한 설명중 二 三 四 五爻 네 개의 효를 교호해서 만든 괘를 中爻(호체)라 하였다.<sup>72)</sup> 래지덕은 이것이 바로 「繫辭傳」下 9장에서 공자가 말한 “옳고 그름을 변별함에 있어서 中爻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辨是與非, 則非中爻不備)”라고 말한 ‘中爻’라고 생각했다. 同人卦<sup>73)</sup>에서 또는 未濟卦,<sup>74)</sup> 既濟卦<sup>75)</sup>에서 말하는 ‘三 年’의 ‘三’이나 明夷卦<sup>76)</sup>에서 말하는 ‘三

70) 陳士元, 『易象鉤解』, “京房之學授受有自, 今之學士大夫擯斥不取, 使聖人不因卜筮而作易, 惟欲立言訓, 則畫卦揲著何爲哉.”

71) 來知德(1525~1604) : 저서 『周易集注』를 저술. 명대 ‘象數派’의 대표인물.

72) 주백근, 『역학철학사』 권6, 김학권 외 4명 옮김, 소명출판, 2012. p.22.

73) 『周易』, 「同人卦 九三」, “伏戎于莽 升其高陵 三歲不興.”

74) 『周易』, 「未濟卦 九四」, “貞吉 悔亡 震用伐鬼方三年 有賞于大國.”

75) 『周易』, 「既濟卦 九三」,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日'등 '三'은 본괘에서 離卦가 세 번째로 나왔기 때문이라 말하고 坎卦77)나 困卦78)의 '三 年' '三'도 坎卦나 困卦의 下卦인 坎卦의 錯卦 離에서 나왔으며 解卦의 九二爻辭79) '세 마리 여우'의 '三' 세도 坎卦의 錯卦가 離卦이기 때문에 '三'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漸卦80)의 '三 年'과 巽卦81)의 '세 물품' 등 '三'은 '中爻'가 離卦에 부합되었기 때문이고 豐卦82)의 '三 年' '三'은 上六이 변하면 離卦가 되기 때문이라 하였다.83) 역시 漸卦 九三 爻辭의 '부인은 잉태하더라도 양육하지 못한다.'는 구절에서 잉태의 상을 가운데가 불룩한 二 三 四爻의 坎卦로 보았고 九五爻辭의 '三年이 가도 잉태하지 못한다.'의 잉태하지 못하는 상을 가운데가 비어있는 三 四 五爻 離卦의 괘상이 부합된다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래지덕은 호체의 경우에도 錯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였다. 小畜卦 三 四 五爻의 互體는 離卦가 되는데 그 錯卦는 坎卦가 된다. 그런 연유로 괘사에서 '구름은 뻑뻑하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다.(密雲不雨)'란 의미가 성립된다고 하였고 六四 爻辭84)에서 '피가 제거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血去惕出)'라고 한 것은 외호체가 離卦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坎卦는 질곡이니 질곡의 상이 있다. 호체 二 三 四爻는 震卦가 되어 발이 되고 三 四 五爻는 艮卦가 되어 손이 된다.85) 그러므로 발에

76) 『周易』, 「明夷卦 初九」, “明夷于飛 垂其翼 君子于行 三日不食 有攸往 主人有言.”

77) 『周易』, 「坎卦 上六」, “係用徽纆 寘于叢棘 三歲不得凶.”

78) 『周易』, 「困卦 初六」, “臀困于株木 入于幽谷 三歲 不覿.”

79) 『周易』, 「解卦 九二爻辭」, “田獲三狐 得黃矢 貞吉.”

80) 『周易』, 「漸卦 九五」, “鴻漸于陵 婦三歲不孕 終莫之勝 吉.”

81) 『周易』, 「巽卦 六四」, “悔亡 田獲三品.”

82) 『周易』, 「豐卦 上六」, “豐其屋 蔀其家 闕其戶 闕其無人 三歲 不覿 凶.”

83) 來知德, 『易經字義』, “中爻者, 二三四五所合之卦也. 繫辭第九章, 孔子言之詳矣. … 如離卦居三, 同人曰 三歲, 未濟曰 三季, 既濟曰三季, 明夷曰三日, 皆以本卦三言也, 若坎之三歲, 困之三歲, 解之三品, 皆離之錯也. 漸之三歲, 巽之三品, 皆中爻合離也. 豐之三歲, 以上六變 而爲離也.”

84) 『周易』, 「風天小畜 六四 爻辭」, “有孚 血去惕出 无咎.”

차는 것은 착고라 하고 손에 차는 것은 수갑이므로 발과 손이 묶여 있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清代의 王鳴盛(1720~1797)은 互體는 卦爻辭의 해석에 있어 가능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만약 互體가 없다면 六十四卦는 다만 육십네 개의 사건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니 어떻게 천지를 두루 다스리고 칭칭 엮어 매인 가지가지 사건 전말을 모조리 다스려 정리할 수 있겠는가?<sup>86)</sup> 하였다.

清初의 유명한 경학 대가 毛奇齡(1623~1716)은 그의 저서 『仲氏易』에서 수뢰둔괘 六二 爻辭<sup>87)</sup> ‘十年 뒤에 자식을 얻는다.’는 내용에 관하여 互體를 구하여 설명한다. 二 三 四爻의 互體 坤卦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부위 배로 보았고 또한 坤卦 지수가 10이기 때문에 10年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였다. 互體가 되는 2효와 5효사이의 爻들중 三爻와 四爻를 중복해서 쓰면서 세 효씩 上 下괘로 나누어 취한 그 상으로 해석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體例가 이후 ‘互體 說’이라 불리어지며 卦 효사의 내용을 해석하여 접치는 일의 복잡한 양상에 부응토록 발전하여 온 것이다.

역시 清代 乾嘉시기 張惠言(1761~1802)은 우변 역학을 漢代 역학의 정종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가 쓴 『虞氏易事』에서 艮卦 卦사<sup>88)</sup> ‘艮은 등에 멈추었으니 몸이 체득하지 못한다. 뜰에 나가도 사람을 보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를 우변이 이에 대해 주석한 것에 의거하여 ‘上九는 때에 맞게 멈춰야 하고 九三은 때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上九’는 陽이 上爻까지 올라갔으므로 멈추어야 하고 ‘九三’은 外互體가 震卦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하였다.<sup>89)</sup> 즉 멈

85) 『說卦傳』 9장, “乾爲首 坤爲腹 震爲足 巽爲股 坎爲耳 離爲目 艮爲手 兌爲口.”

86) 王鳴盛, 『蛾術編』, 『說錄二 南北學尙不同』, “若無互體 六十四卦, 只說六十四事, 何以彌綸天地經緯萬端乎?”(강소광릉고적각인사, 1992)

87) 『屯卦 六二爻辭』, “屯如遭如 乘馬班如 匪寇 婚媾女子貞 不字十年 乃字.”

88) 『艮卦 卦辭』, “艮其背 不獲其身 行其庭 不見其人 无咎.”

89) 虞翻, 『周易注』, “時止謂上, 陽窮上故止. 時行謂三體處震爲行也.”

추거나 움직여야 하는 근거를 장혜언은 互體를 찾아 밝힌 것이다. 장혜언은 특히 “理는 자취가 없지만 象은 의거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 象을 버려두고서 理를 말하고자 한다면 비록 주공과 공자라 해도 근거를 가지고 변론하거나 글을 쓸 수 없을 진대 漢代 유자들은 사실에 맞는 象을 적합하게 하고 爻의 변화를 미루어 卦까지 이해하려 하였으니 역은 넓고도 크며 象을 갖추지 않음이 없다. 그 중 한 개의 단서라도 드러나기 마련이라. 지금까지 나는 漢代 유가의 말 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의 정확성을 피력하였다. 그러므로 象을 떠나서 理를 밝힐 수 없다.<sup>90)</sup> 라고 말을 한 상수학자 장혜언을 비롯하여 李塏(1659~1733)과 惠棟(1697~1758)등 漢代의 상수학을 되찾아 해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互體를 많이 활용하여 해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아가 焦循<sup>91)</sup>은 그가 말하는 ‘방통 괘와 호체 설’을 활용하여 屯卦의 卦辭 중에 왜 祭후를 세움이 이롭다고 말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焦循은 乾嘉시기의 유명한 경학가로서 특이하게도 卦를 수학적으로 해석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二爻와 五爻의 움직임을 元, 다음 初爻와 四爻의 움직임을 亨, 다음 三爻와 上爻의 움직임을 利, 그리고 두루 움직여 통하는 것을 貞으로 순서를 놓았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해설한 것이 초순의 『易章句』이다. 錯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괘를 초순은 방통괘라고 말하였다. 즉 火風鼎괘 각 효의 음양이 반대로 바뀌는 水雷屯이 錯괘이며 초순이 말하는 방통괘이다.

수뢰둔의 괘사에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는 의미는 咸괘의 외호체가 강건한 의미를 갖는 乾卦가 되기 때문이라고 초순은 말한다. 살펴보면 처음 元의 과정에서 수뢰둔의 錯卦 화풍정괘의 二爻와 五爻의 자리가

90) 張惠言, 『虞氏易事』, 「一」, “夫理者無迹, 而象者有依, 舍象而言理, 雖姬孔靡所據以辯言正辭, 而況多岐之說哉. 設使漢之師儒, 比事合象, 推爻附卦, 明示後之學者有所依逐, 至於今, 曲學之嚮, 千啄一沸, 或不至此. 雖然, 夫易廣矣, 大矣, 象無所不具, 而事著於一端, 則吾未見漢儒之言之略也.”

91) 焦循(1763~1870) : 乾嘉시기의 유명한 경학가, 삼백권의 저서를 남김.

바뀌면 천산둔괘가 되는데 이 과정을 元이라 하였다. 다음 화풍정의 방통괘가 되는 水雷屯괘의 三爻가 천산둔괘의 上효와 자리를 바꾸어 元의 변화에 따르니 亨이 된다.<sup>92)</sup>

수뢰둔괘의 三爻가 천산둔괘의 上爻와 자리바꿈하면 天山遯괘는 澤山咸이 되고 水雷屯괘는 水火既濟卦가 된다. 既濟를 이룬 것이 利가 되고 이 과정의 두루 통합이 貞이 된다고 하였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뢰둔괘의 방통괘가 화풍정이고 화풍정의 二爻와 五爻가 자리바꿈하면 천산둔괘가 된다. 천산둔의 上爻와 수뢰둔의 三爻가 자리바꿈하면 천산둔은 泰산함이 되고 수뢰둔은 수화기제가 되는데 이때 泰산함의 외호체가 건괘가 되므로 건괘는 강건한 제후의 패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뢰둔의 패사에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초순은 스스로 개창한 해석 틀로서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초순의 방식에 맞추어 호체를 찾아 해석하였다.

또한 초순은 乾卦의 初爻 효사에 나오는 ‘잠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互體를 내어 설명한다. 乾卦의 방통괘가 坤卦인데 乾의 二爻가 坤의 五爻 자리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초순은 中爻인 二爻와 五爻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元이라 하며 중요시 하였다.) 乾의 上효가 坤의 三효로 내려왔으니 謙(초순은 謙을 潛으로 假借 說을 따랐다.)卦가 되어 잠긴 상태가 되고 地山謙의 외호체가 震卦가 되니 震卦는 용이므로 잠룡이 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초순의 괘 해석법을 설명코자 하기보다는 ‘互體’의 두루 쓰임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林義正은 괘 해석의 유형에는 직석(直釋)과 방통(旁通)이 있다고 하였다. 직석은 경전 그대로를 풀어 밝히는 해석을 말한다며 방통은 서로 다른 경전 사이가 융합하고 관통하도록 하는 해석을 말한다.<sup>93)</sup>고 하였다.

92) 焦循, 『易章句』, “鼎二之五爲元, 三往從之爲亨, 變通於鼎而屯成既濟, 鼎二未之五 則三不可往, 申明君子有攸往之先迷, 建猶健也, 謂鼎二之五.”

93) 林義正, 「論中國經典詮釋兩介基, 直釋與旁通—以易經的詮釋爲例」, 『周易研究』76호, 2006, pp.29-39 참조.

旁이라는 글자는 廣의 뜻으로 두루 통하는 범위가 매우 넓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互體 法은 당연히 직석적 해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안 되는 곳이 없이 두루 넓게 쓰이는 융합성은 방통적인 해석의 출발선이자 도화선이 되어 ‘직석과 방통’을 동시에 구가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중국 호체의 발전 양상을 살펴본 결과 경문 또는 점괘의 내용에서 폭넓은 해석을 위해서는 ‘互體’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 V. 韓國의 互體 發展樣相

우리나라에서는 점서적 해석적 주역 연구보다는 주자학이나 성리학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광해군 시대를 살았던 曹好益의<sup>94)</sup> 『易象推說』과 영 정조때에 역리와 내단학을 연구한 徐命膺의 『參同考』 그리고 정조때의 牧民을 위한 茶山 丁若鏞의 『周易四箋』이 전해온다.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互體’를 중요시하였다는 점이다.

### 1. 曹好益과 徐命膺의 互體象과 意味

曹好益에 대한 역학계의 평가는 퇴계 학파의 의리경향을 계승한 의리 역학가로 논증하고 있다. 예로써 嚴連錫은 그가 쓴 ‘조호의 역학의 상수학적 방법과 의리학적 목표’에서 “芝山 역학은 의리와 유가적 실천론과 상수 역학적 방법론을 결합하여 자신의 역학이론을 전개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95)</sup> 또한 김인철은 “象을 통해서 의리를 보조하고 있으며 『易象推說』의 해석 방식이 퇴계 학파의 발전선상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윤석민은 조호의 『易象說』의 해석들 분석(1)에서 八卦之義를 八卦之象

94) 曹好益(1545~1609) : 저서 『周易釋解』, 『易象說』, 『家禮考證』 등, 號 芝山.

95) 엄연석, 「조호의 역학의 상수학적 방법과 의리학적 목표」, 『대동문화연구』 제 38집, 2001, p.210.

으로 포괄하면서 象을 취해 나갔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上·下體, 互體, 反體, 略體<sup>96)</sup>등 괘체의 변화 중에서 互體 說이 가장 많이 사용한 해석의 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上·下卦體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물상들이 호체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山天大畜卦 九三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下卦인 乾은 良馬가 되고 外互體인 震은 足이 되는바 좋은 말이 달려 나가는 象이라 한 것이다. 風山漸卦 內互體는 水가 되고 外互體는 離가 된다. 離는 鳥가 되므로 물새의 象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曹好益은 退溪 李滉의 의리역학을 배우고 따른 사람이지만 해석적 측면에서는 互體에 의하여 象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정조시대 선천 학을 궁구하여 체계화한 도학자 徐命膺<sup>97)</sup>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가 쓴 『參同攷』중 「互體攷」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乾卦는 初爻와 上爻를 부를 때 初九 上九라 말하면서 먼저 그 자리를 말하고 나중에 爻를 말한다. 中間의 네 효는 효를 먼저 부르고 나중에 자리(初九 九二 九三...上九)를 말한다. 類를 미루어 象에 배분하면 初爻와 上爻는 먼저 그 자리를 밝히고 부르지만 두 번째 二爻에서 五爻까지는 먼저 爻를 말한 후에 자리를 말한다. 즉 아래에서부터 순서를 붙여 처음 효는 初를 붙이고 陰일 때는 六, 陽일 때는 九를 함께 부른다. (初六, 初九) 맨 위의 효를 말할 때는 上을 붙이고 陰일 때는 六, 陽일 때는 九를 붙여 부른다. (上六, 上九) 그 외 二爻에서 五爻까지는 음양을 나타내는 수를 먼저 부르고 다음 자리순서를 부른다는 것이다. (九二, 六二, 九三, 六三...등) 왜 그런가? 이는 聖人이 中間의 互體를 이루는 네 爻가 卦의 묘용이 됨을 보여 준 것이다. 初, 上 두 爻는 形질의 표피로서 心과 意를 머금고 있는 것이고 中間의 네 효(二爻에서 五爻까지)는 心과 意로

96) 上·下體, 互體, 反體, 略體(似體), 한 괘내 여섯효의 형상으로부터 세효, 네효, 다섯효, 여섯효가 각각 만들어내는 형상을 가리킴.

97) 徐命膺(1716, 숙종42~정조11 1787) : 저서 『易學啓蒙解』. 본관은 달성, 字 君受, 號 保晚齋, 澹翁.

서 주고받고 건네며 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 중 제 二爻는 互體의 처음 움직이는 기미로서 互體의 주가 된다고 하였으며 그는 또 古今의 우주가 지극히 깊숙하고 혼잡스러운 이 모두는 호체의 法象이 된다고 보았으며 互體의 심의로써 互體의 범상을 미루어 본다면 혹시라도 얻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았다. 『繫辭傳』에 말하길 “서두르지 않아도 빠르고 가지 않아도 이른다.”<sup>98)</sup>는 말처럼 천하의 뜻을 신명하게 하는 것은 ‘互體’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 하였다. 徐命膺은 도교 학자로서 『周易』을 도교와 융합하여 廣義의 旁通적 해석을 한 사람으로서 互體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하며 해석한 사람이다.<sup>99)</sup> 그는 互體를 통하여 物상을 취하기에 앞서 中爻(二 三 四 五爻)의 중요성을 여섯 효의 의미에서 찾았다.

## 2. 茶山 丁若鏞의 다양한 互體說

茶山 丁若鏞<sup>100)</sup>의 목민을 위한 互體 접서법은 下互(二 三 四爻)와 上互(三 四 五爻)를 취하는 互體 外 다양하게 분류한 互體 法을 연구한 흔적이 그가 저술한 「周易四箋」<sup>101)</sup>에 남아 있어 기술해 보겠다. 다산은 일반적인 호체 외에 [大互] [兼互] [倒互] [伏互] [半合] [兩互] 체법 등 여러 방식으로 구사하였다.

98) 『繫辭傳』上 10장, “... 故不疾而速 不行而至 ...”

99) 서명응, 『참동고』 권2 「호체고」, “易之乾卦 九初上兩爻則曰初九曰 上九, 必先位而後爻焉, 中間四爻則曰九二曰九三曰九四... 必先爻而後位焉. 蓋不特乾卦而已, 其餘六十三卦, 莫不皆然, 何哉? 此聖人所以示中互四爻爲卦之妙用也... 推類配象, 則初上兩爻即形穀, 所以含具心意也, 中間四爻即心意, 所以酬酌事爲也... 爲古今宇宙之至曠至紛者, 又皆互卦之法象. 以互卦之心意, 推互卦之法象, 其或有不得者乎! 易曰, “不疾而遠, 不行而至”. 神明天下之志, 蓋互卦之謂也. 而內體第二爻, 又互卦初動之幾, 爲主於互卦者也. ...“(예문서원, 2009, p.102)

100) 茶山 丁若鏞(1762~1836) : 저서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등 500여 권.

101)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p.416.

[대호] 체법이란<sup>102)</sup> 네 개의 효로 되어있다. 즉 一 二 三 四조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대리(大離)와 대감(大坎)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巽卦의 一 二 三 四위를 취하면 大坎이 되고 震卦의 一 二 三 四위를 취하면 大離가 되는 체법을 말한다.

[검호] 체법이란 重조 二 三 四 五조 네 개의 효를 취한다. 즉 臨卦는 大震이 되고 遯卦는 大巽이 되고 小過卦는 大坎이 되는 체법이다.

[도호] 체법이란 말 그대로 거꾸로 뒤집은 괘를 취하는 호체법이다. 육십사괘에는 괘 陰陽을 뒤집어 놓아도 동일한 여덟 괘가 있다. 그 중 乾과 坤은 純陽 純陰괘이므로 호체를 취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지만 나머지 여섯 개의 괘는 호체를 취하여 괘 해석을 보충한다.

[복호] 체법이란 奇數(一 三 五)의 조위에 陽을 배치하고 偶數(二 四 六)의 조위에 陰을 배치하면 坎卦가 생기고 離卦가 생긴다. 이럴 때는 어떤卦이던지 간에 드러난 조 이면에는 水와 火가 잠복되어 있게 된다. 이를 복호 또는 복체라고 한다.

[반합] 체법이란 上卦와 下卦중 上卦는 뒤집어 倒置된 괘를 취하고 下卦는 正卦 그대로 취하는 괘체법으로써 반씩 합친다는 뜻이 있다. 예를 들어 歸妹卦에서 下卦는 兌卦를 그대로 취하고 上卦는 도치시켜 뒤집힌 艮卦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歸妹卦의 반합체는 山澤損괘가 된다.

[양호] 체법은 정약용식의 독특한 괘 해석법이다. 일반적인 互體 즉 二 三 四조는 下互體, 三 四 五조는 上互體를 구하여 上下 互體를 합한 互體에 본괘에서 動한 자리 位를 그대로 動한 조로 지정하여 之卦를 구하는 것이다.

丁若鏞은 兩互體를 내어 살펴보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前民用’ 즉 백성들의 실용적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102)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p.416 재인용. 『周易四箋』1, 『定本 與猶堂全書』 15, pp.45-46; 『역주 주역사전』 권1, p.76, “五十衍卦, 其分者也. 故其本體之內, 皆有坎離.”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것은 혼인 점을 치러 왔는데 혼인점괘가 나오지 않았을 때 丁若鏞은 양호체법으로 점사를 구하였다. 즉 혼인 점을 치러 왔는데 혼인과 관계없는 山風蠱괘 三爻 動이 나왔다면 혼인에 대해 알 수 없다. 이럴 때 動爻와 之卦는 무시하고 互體法으로 괘를 내면 雷澤歸妹 괘가 나온다. 귀매 卦에서 三爻를 爻變 시키면 雷天大壯卦가 나오는데 이때의 점사를 歸妹之 大壯으로 풀어보는 것이다. 이것을 양호체법이라 하였다. 이는 卦체 二爻에서 五爻까지의 中爻를 중심으로 물어오는 점사에 맞는 점괘를 만드는 互體法으로서 互體에 動爻를 적용하여 실용적 용도에 맞추어 점사를 보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禁民邪’ 즉 백성들이 사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sup>103)</sup> 만일 옳지 못한 일의 점사를 내었는데 吉卦로 나왔다면 互體를 내어 凶한 卦象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일에 해당하는 점사를 찾아내어 善을 행하도록 올바르게 인도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정약용은 牧民을 위하여 거의 모든 卦에서 互體 해석을 빈번하게 활용하였으니 茶山 역학에서는 互體 說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茶山 丁若鏞은 『周易四箋』에서 兩互라 말을 하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互體 法을 용도에 맞추어 변화시킨 것이다. 丁若鏞과는 좀 다르지만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온다. 회계의 한 선비가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맞아 점을 친 사례이다. 송나라 때에 금나라 임금 제 4대 해릉왕 완안량이 침략해 왔을 때의 점서 例이다.<sup>104)</sup> 이 선비는 맨 처음 蠱卦의 여섯 효가 모두 변하는 之卦 隨卦를 얻었다. 그런데 이 선비는 之卦 隨卦의 互體를 내어 漸卦를 도출하였다. 그는 이 漸卦로부터 완안량이 敗할 것이라 해석하였던 것이다. 특히 隨卦는 否卦로부터 卦變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완안량의 목이 잘릴 것을 예견하였

103)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p.419.

104)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p.420  
재인용. 「周易四箋」1권, 『定本 與猶堂全書』, pp.15,48; 『역주 주역사전』 1권, p.87, “宋時, 金主, 完顏亮入寇, 筮之遇隨卦, 占者曰, 兩互爲, 亦此法也.”

다.105) 天地否卦의 初六爻와 上九爻가 자리바꿈하면 澤雷隨卦가 되는 卦變을 말한다.

정약용의 여러 가지 호체법과 회계의 선비가 점을 친 사례를 살펴보면 卦體의 上卦 下卦를 이루는 각 여덟 개의 卦는 독립된 상징적인 면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속성이 매우 機能的이고 流動的'임을 알 수 있다. 어찌면 卦의 해석적 차원에서 정약용은 정약용식 생각으로 현실에 맞추었고 회계의 한 선비도 그 선비식 생각을 발휘하여 당면한 과제를 판단하였다. 경전의 텍스트에 맞는 해석은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매우 창조적인 해석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의 호체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상수학자나 술수가가 아니었지만 象을 취하고자 할 때는 한결같이 호체를 중심에 두었다. 근래의 학자 중 장봉혁<sup>106)</sup>은 『學易綜述』에서 “學易하는 자는 여타의 체설들이 많이 있지만 경문의 본문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호체(괘)설’만은 그 요의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107)</sup> 라고 하였다.

## VI. 結論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문자로부터 시작된 호체의 발전 양상을 중국과 한국의 경우를 나누어 더듬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지는 ‘待對(錯)와 流行(綜)’에 의하여 변화하며 현상세계가 일어난다면 理學派든 象數派든 그 근원적 분석은 互體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서한시대의 경방이 최초로 호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의리역학

105) 程迥(南宋代, 생물 미상)의 『周易古占法』, 何楷(明代, 생물 미상)의 『古周易訂詁』, 毛奇齡(1623~1716)의 『仲氏易』과 『春秋占筮書』 등 고사가 있음.

106) 張俸赫(1937-) : 號 德田, 저서 『學易綜述』의 다수.

107) 張俸赫, 『學易綜述』, 학고방, 1999, p.110.

자로 호체를 즐겨 활용한 사람은 鄭玄(127~200)이다. 朱熹는 『易學啓蒙』에서 모든 괘는 네 개(乾 坤 既濟 未濟)의 ‘互體’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즉 해석적인 측면보다 괘의 연관성에다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실제로 주희는 ‘互體不可廢論’을 주장하였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상수학자로서 漢代의 역학을 적극적으로 연구발전 시킨 사람은 명대의 陳士元과 來知德등을 들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광해군 시대의 曹好益과 영 정조시대 역리와 내단학을 연구한 徐命膺 그리고 牧民을 위하여 互體를 연구한 茶山 丁若鏞의 占事的, 해석적 업적은 앞으로 더욱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리역의 선구자인 왕필을 위시하여 현대 역학의 상수 학을 비판한 왕부지까지 卦와 爻辭의 해석에서는 ‘中爻’의 義(괘덕)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互體의 활용을 철저히 배척하는데 자유롭지 못했다. 象數派는 의리를 버리고 『周易』을 해석 할 수 없었고 義理派 역시 中爻를 중시하지 않고 『周易』을 해석할 수 없었으니 ‘互體 法’은 義理易을 중시하는 경학파든 象과 數를 중시하는 상수학과든 간에 두루두루 쓰이며 폭넓은 해석을 도모하는 데는 꼭 필요하였다. 의리파가 中爻를 벗어날 수 없었고 상수파가 義理를 저버릴 수 없었음은 각 여덟 卦의 物象과 物象이 중복되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여섯 개의 효에 있다. 여섯 개의 효는 한 개의 대성괘를 이루어 끊임없이 日新하고 ‘生生不息’하는 각 경우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글이 아닌 음양 ‘(--, -)’의 부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양의 부호로 된 여섯 개의 효는 天 人 地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물상(사람포함)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과 물질, 시간과 공간, 과거와 미래’등을 동시적<sup>108)</sup>으로 함축하고 있기에 象과 이치의 근거를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섯 개의 효에서 初爻와 二爻는 地, 三爻와 四爻는 人, 五爻와 上爻

108) 신성수, 『『周易』의 미래예측(미래예측)과 시공간(시공간) 인식 중 - 음의 동시성이론과 관련하여』, 『동양학 : 과거를 넘어 미래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6.

는 天으로 三才를 분류하지만 三才가 동시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 필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初爻와 三爻, 上爻는 天人地의 보이지 않는 부분, 二爻와 四爻, 五爻는 天人地의 보이는 부분을 상징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들어와 보이는 부분을 의식하면서 땅이라 하고 하늘이라 하면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로 알게 모르게 흐르는 ‘시간과 공간’, ‘정신과 물질’ 등에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고 있으니 각각 다른 세계 속에서 다른 시작과 결과를 초래하고 만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互體’는 사람 중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과 시간을 위주로 하여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각자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을 과거에서 미래로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복잡다단한 관계적 양상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初爻와 上爻를 제외한 중간에 있는 네 효를 중심으로 교호시켜 세운 ‘互體’는 전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 되는 부분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우주 가운데서 변화무쌍한 인생의 근본원리와 천하의 뜻을 품고 있는 ‘中爻’가 되는 ‘互體’는 드러나지 않는 의미, 감추어진 의미를 필요에 따라 전체 속 부분을 끄집어 낼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互體’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상응하는 卦象을 얻기 위하여 무분별한 남용과 지나친 작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繫辭傳」의 말처럼 ‘易은 비어있는 여섯 位에 두루 행하고 위아래로 일정하지 않게 굳셈과 부드러움이 서로 바뀌니 오로지 변해가는 바에 따를 뿐’<sup>109)</sup>으로 ‘互體’의 활용 범주 역시 어떻게 정할 수도 제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편중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天道에 편중된 상수학과나 人事에 편중된 의리학과나 함께 의리와 상수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周易』이 강조하는 ‘天人合一’의 정신에 부합될 것이다.

109) 「繫辭傳」下 8장, “… 周流六虛 上下無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만약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배척하고 독점하려 한다면 모두가 모순에 빠지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지향하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이고 時中적인 해석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융합적인 측면에서의 ‘互體法’ 연구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參考 文獻>

- 邵康節, 『梅花易數』, 김수길 외 1명 옮김, 대유학당, 1996.
- 王夫之, 『周易內傳 1권-4권』, 김진근 옮김, 학고방, 2014.
- \_\_\_\_\_, 『繫辭傳』, 김진근 옮김, 학고방, 2014.
- 周伯昆, 『易學 哲學史 1권-8권』, 김학권 외 4명 옮김, 소명, 2012.
- 朱 子, 『易學啓蒙』, 珍藏版本, 武陵出版有限公司, 1986.
- 徐命膺, 『參同攷』, 이봉호 역주, 예문서원, 2009.
- 
- 방 인, 『다산 정약용의 『周易四箋』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 申性秀, 『周易通解』, 대학서림, 2005.
- \_\_\_\_\_, 『『周易』의 미래예측과 시공간 인식』, 『동양학 : 과거를 넘어 미래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6.
- 張俸赫, 『學易綜述』, 학고방, 1993.
- 정병석, 「방통과 융합, 『周易』, 해석 공간의 확장과 연속」, 한국주역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6.

##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Yeokhak-Based Meanings of Hoche Theory*  
/ Choi Yeen-yeung\*

The Hoche theory is a critical method of interpreting Book of Changes broadly, but there has been a shortage of its systematic research.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the discussion patterns of Hoche in the history of Yeokhak and propos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future Hoche theory researches.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traced the origin of Hoche that started with the buci of inscriptions on bones and tortoise carapaces excavated in Yinxu, interpreted them in diverse ways for the Yeokhak-based understanding, and examined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Hoche by the periods both in China and Korea. After Jing Fang first established the Hoche theory in West Han, Zhen Zhu and Hu Bingwen more focused on interpretations of taking in images different from their masters Yi Chuan and Zhu Xi known as scholars of Yili-yi. In his Yi Xue Qi Meng, Zhu Xi stated that all trigrams operated in the four Hoches(Qian, Kun, Jiji, and Weiji). That is, he put more focus on the connections of trigrams than their interpretative aspects. Indeed Zhu Xi neither excluded Hoche nor made active use of it. In Ming Dynasty, Chen Shihyuan and Lai Zhide were active with researching and developing the Yeokhak of Han, in which the scholars of Xiang-shu said they could not interpret Yi without Xiang. In Korea, the study examined Jo Ho-ik, who was a civilian scholar in middle Joseon and investigated the Yaoci meanings of Guaci trigrams around Hoche in Book of Changes, Seo Myeong-eung, who studied Yili and Neidanxue during the reign of Kings Yeongjo and Jeongjo, and the divinatory

---

\* Ph.D. Candidate, Gongju National University / ch105050@daum.net

interpretations of Dasan Jeong Yak-yong, who investigated Hoche to govern people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 Samjae of Heaven, Earth, and Man, yin and yang, spirit and matter, and time and space can penetrate into a trigram(six Hyos) through wating and forming a connection and prevalence because they are in yin and yang signs(-- -). Both the school of Yili-yi and the school of Xiang-shu interpret the 64 trigrams of Book of Changes in relation to the natural objects and men. As both scholars of Xiang-shu and scholars of Yili-yi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aking in images in an attempt to figure out the root, the Hoche researches became even more active. Hoche is Zhongyao that is established by the reciprocal action of four Yaos except for Chuyao and Shangyao. Hoche of Hoche(Hohoche) finds its center in Sanyao and Siyao under the category of the human world. Since Sanyao and Siyao belong to human world, they refer to the parts related to man. In addition, the Hoche theory is capable of doing comprehensive interpretations by pulling out covered meanings or complex hidden relational patterns according to the need, which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Yeok without Hoche.

【Key words】 Hoche(互體), Zhu Xi(朱熹), Seo Myeong-eung(徐命膺), Jo Ho-ik(曹好益), Jeong Yak-yong(丁若鏞), yin and yang(陰陽), the school of Xiang-shu(象數學), Hohoche(互互體)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19일